

## 출판사 사재기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반영해...  
출판의 문화적 기능 회복에 힘써야

일부 출판사의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파문은 우리 출판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출판저널》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번 파문에 대한 의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필자는 가나다순). — 편집자

### 공정한 경쟁구조 자리 잡아야

강내희 | 문화평론가 · 중앙대 영문과 교수

출판사의 사재기 행위는 범죄행위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양심 있는 출판사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있지만, 언론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판에 대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은 좋은 책을 골라 독자에게 소개해야 하는 것인데, 요즘 언론은 베스트셀러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의 문화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출판사는 결국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대형 서점들도 사재기를 부추기거나 방조·방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재기를 통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하루 빨리 공정한 경쟁구조가 출판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노력이 절실하다.

### 지속적인 자정노력 떠나갈 것

김인호 | 바다출판사 대표 · 한국출판인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일부 출판사의 사재기와 관련해 한국출판인회의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문제는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서점과 독자를 기만해서라도 책을 팔고 보자는 출판사의 알팍한 상술이 빚어낸 공동작품이다. 그렇다 해도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성을 저버린 채 독자를 호도한 일부 출판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런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은 한 출판사의 양심과 도덕성을 넘어 서점과 출판사를 비롯한 출판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계가 함께 자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한국출판인회의 산하에 '올바른 출판 환경을 위한 특별 위원회' (가칭)를 두고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떠나갈 것이다.

###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돼야

김재운 |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사재기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 독자들의 독서편식 경향 때문이다. 우리나라 독자들은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읽기 쉽고, 감성을 자극하는 흥밋거리 위주의 책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출판사들의 베스트셀러 만들기 욕구를 부추긴다. 또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 역시 출판사의 이런 욕구를 부추기는 데 한 몫한다.

출판사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화적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판단체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독자 또한 베스트셀러에 의존하는 독서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교육, 언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올바른 독서문화를 위한 운동과 교육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출판유통정보화에 힘 쏟을 것

나춘호 | 예림당 대표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출판사들의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일부 회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바다. 그러나 출판·지식·문화의 인프라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출판사들의 도덕성 회복에만 호소해 사재기 문제를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출판 유통 전산망이 하루 빨리 갖춰져 실제 판매 부수 산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1년도 출판유통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출판·서점 업계는 이를 추진 중에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98년부터 전국 30여개 중대형서점의 자료를 수집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주간 베스트셀러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런 집계는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현재 10여개 지면으로 감소한 형편이다. 두 단체는 1998년 시행했던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집계를 일신해 표본집단을 전국 150명 이상의 중대형 서점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베스트셀러 제일주의' 버려야

도정일 | 문화평론가 · '도서관련콘텐츠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출판사 사재기는, 출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독자에게 더 이상 출판인의 양식을 믿지 못하게 한다. 출판은 산업일 뿐 아니라 문화적 실천이다. 따라서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식이 중요하다. 사재기는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사재기에 대해선 물론 해당 출판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베스트셀러를 부추기는 언론에도 그 책임이 있다. 언론의 '베스트셀러 제일주의'는

출판사에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압박증을 부추긴다. 언론은 '베스트셀러 제일주의'를 반성해야 한다.

출판 단체들도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고 독자신뢰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항이 담긴 윤리강령을 만들어 각 회원사에 배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철저한 내부조사를 실시해 단체 차원의 징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출판계의 자정 노력에 서점도 공조할 것

위성계 | 교보문고 홍보팀장

대형종합서점의 베스트셀러는 독자들이 책을 판단하는 기준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재기 파문에 대해서 대형서점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판계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대형서점의 단속 기피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 주객전도다.

교보문고의 경우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판매를 우선으로 하되, 데이터를 정밀 검색하고 요일별 편차를 비교해 명백히 사재기라고 판단되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한 사재기를 적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자의 신뢰를 잃으면 출판계나 서점이 공멸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출판계가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가시화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출판계와 공조할 것이다. 카운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정확한 베스트셀러 순위를 집계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다.

## 출판의 공익성 회복해야

이창경 | 선구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출판사의 사재기 문제는 출판계의 '일반화된 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재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 셈이다. 정서를 함양하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어야 할 책이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읽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출판산업의 공익적 측면을 출판인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책으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출판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업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재기 같은 변칙적인 상업행위는 결국 독자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사재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에 대한 출판사, 유통관계자, 언론 등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서점 또한 양서를 선택해 진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공정한 경쟁 구조 만들자

조유식 | 온라인서점 알라딘 대표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면서 출판사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판사나 출판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사재기를 미리 계획하고 사업에 임한다면 책을 잘 만들거나 훌륭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은 자연 소홀하게

마련이다. 정당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출판계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사재기 행위를 잡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수십권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권씩 사는 경우엔 사재기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포함해서 모든 서점들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재기를 방조하지 않는다는 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출판이 지식산업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최선호 |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출판사의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언론을 눈속임하는 일이다. 사재기를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밀수도 무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출판사들의 이런 행위는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출판은 무엇보다 지식산업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의 원인은 무엇보다 언론의 베스트셀러 집계 보도에 있다. 언론은 몇 개 주요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만을 인용해 보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여개 이상의 중대형 서점에서 집계·합산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 책은 경쟁상품이 아니라는 인식 필요해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출판사의 사재기는, 출판사가 페어 플레이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3백종이 연간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출판 현실에 비춰보면 단순히 출판사만 비난할 문제도 아니다. 대형서점들은 공정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재기를 매출확대의 수단으로 삼고 구전 책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1천여개 서점들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보면 서점에 양심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재기를 하지 않고도 출판사나 서점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출판사, 서점, 독자가 함께 노력해 양서가 팔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 서관의 콘텐츠 확충도 시급하다. 그리고 도서정가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서점의 각종 할인 이벤트는 출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책은 경쟁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 정리·김장근 기자